

이낙연 “당대표직 영광… 文정부 성공 역할·책임 다할 것”

지난해 8월 선출...192일 만에 대표직 사퇴 “480건 안건 통과...공수처·국정원 개혁성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당 대표직을 물러나면서 “당 대표로서의 복무는 참으로 영광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8월29일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격정해주시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이 대표가

내년 3월9일 있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는 “당대표로 일하는 동안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다.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몹시 송구했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다. 당 대표의 경험도 그것이 짙었던, 잘못됐던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수십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 ▲5·18 3법 의결 등도 성과로 꼽았다.
이 대표는 “당정정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라며 “지난해

OECD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그 모든 성취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선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며 “그 두 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LH 땅 투기 의혹’朴정부 포함?...“정치적 고려無”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기 의혹 조사가 박근혜 정부 일부 시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9일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로 조사 확대’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확대가 아니라 원래 조사 시점에 포함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대상 및 범위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합조단은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국토교통부, LH 등 공직 유관단체,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입지가 처음 발표된 것이 2018년 12월이기 때문에,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관계기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 내역도 조사 대상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총 3년 5개월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면 정권 출범 때부터인 2013년 2월로 시점을 정하지 않았겠느냐”라며 “(정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

‘박원순 성추문’ 놓고 오세훈·박영선 물고 물리는 ‘입싸움’

박영선 “박 전 시장 관련해 피해 여성께 대신 사과” 오세훈 “여전히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치러지는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연일 물고 물리는 입싸움을 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9일 청와대 앞에서 전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를 겨냥, “여전히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성추행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박영선 후보는 그간 불분명하게 사과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일관해오다가 어제 비로소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뉴스를 보다보니 여전히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를 여성이란 표현을 사용, 피해자를 여전히 피해자로 안고 여전히 피해호소

인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성추행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발표한 여성정책브리핑에서 “박 전 시장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린다”며 “피해자가 느끼기에 우리의 사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시점에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비판하자 박 후보는 정책 대결을 벌이겠다고 응수했다.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행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 사과했다”는 말을 듣고 다소 의아했다며 “진심을 담은 사과가 여성의 날이냐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양심이 있으면 박원순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을 캠프에서 쫓아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쫓아내라는 거부장적인 여성비하 발언을 듣고 몹시 우울했다”며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남성 두 후보에게 묻는다. 우리는 언제 서울의 미래에 관한 건전한 정책토론을 하며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라고 맞받았다. 뉴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사퇴설, 왜?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사퇴설이 나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중 대표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는 대선 1년 전 당직을 내려 놓아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식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측에서 선거를 돕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또 최고위원직을 내려 놓으면 본격적으로 시택이 있는 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정권재창출 역할 의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만류’...대선경선 참여 관측도 나와

그런데 지난 8일부터 양 최고위원의 사퇴설이 지역 정가에서 돌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사퇴의 변까지 작성해 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선 1년 전 당헌당규 규정 때문인지 양 최고위원이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 최고위원이 사퇴를 고심하는 것은 대권보다는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양 최고위원 조직 일부가 박영

선에 내려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양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실제 사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양 최고위원측 관계자는 “최고위원회의가 1주일에 3번이나 열려 적극적인 보궐선거지원을 할 수 없는 점이 있어 사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고위원 사퇴 고심은 보선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